영이 충만하면 크게 보인다

(사사기 14:1~20)

1.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이 충만하면 크게 보인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이 충만하면 크게 보인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눈이 좋아지는 마사지를 알려주셔서 해보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양쪽 눈을 한 3분씩 3번 마사지하면 안경도 벗을 수 있다고 해서 해보았는데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시력이 0.8만 되어도 안경을 벗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태국의 모겐 족은 시력이 9.0이라고 하고, 티벳 유목민은 5.0이고, 몽골 유목민은 평균이 4.0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시력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시력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살아도 큰 지장은 없으나 마음의 시력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시력은 나쁘고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의 시력에는 사람마다 나쁜 시력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에게 어느 것이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살아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크게 보이는 것이 현실감입니다. '현실'이란 내가 크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객관적인 사실은 있지만 객관적인 현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극히 주관적이고

철저하게 마음의 시력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을 사는 것은 내 마음의 시력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의 시력'은 다 작게 보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시력의 질이 결정되고, 그 시력의 질에 따라서 현실의 어떠함이 판가름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실은 전혀 크게 보질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내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돈이 없는 사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 곰탱이 같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묵살하고 사는데 다른 것을 크게 보고 건강을 작게 보기 때문인데 이렇듯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마음의 시력은 무엇을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살고 있는 곳은 단 지파에 속한 소라입니다. 가나안으로 치자면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남부가 있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단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단 지파의 아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상황입니다. '소라'는 해발 354m의 성읍으로 그곳에서 불과 6.4km 남서쪽으로 딤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통 사람도 이방민족과의 결혼을 금했었고, 삼손은 그중에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방민족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금지한 것이었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를 결심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기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다보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유독 아내들에 관한 것에만 약했습니다. 결국 아내로 삼기 위해서 딤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자의 입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이 결혼식에 참가하게 되고, 삼손은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걸었는데,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닦달하여 수수께끼를 맞힙니다. 삼손이 져서 30벌 베옷과 겉옷을 주게 되자 아내를 이용한 것에 화를 냅니다. 19~20절에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성읍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겉옷과 베옷을 약탈해서 주게 되고, 결국 결혼도 못하고 딤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내는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를 찢어죽일 때와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빼놓고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4절에 보면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인데 부모는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으로 전략상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껏 블레셋을 치는 것도 수수께끼를 냈다가 져서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약탈해서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도무지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듯 어려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며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하는데 아스글론은 딤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읍은 블레셋 땅의 아주 깊숙이 자리한 곳이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 성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동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적대적인 이방민족의 영토 안으로 혼자 깊숙이 들어가서 30명을 죽이고, 30벌의 겉옷과 베옷을 노략질합니다. 그때의 블레셋은 국가의 형태를 지닌 민족이었던 만큼 그 소식은 삽시간에 블레셋 중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0km를 돌아오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고 삼손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대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도망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냈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삼손이 30명을 죽였다면 이 사건의 파장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유린당한지 무려 40년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모두가 블레셋이 무서워서 움츠러들고 지내는 동안에 블레셋 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약탈해서, 딤나로 돌아와 내기에 이긴 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제 강점기에 조선 사람이 혼자서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에 가서 일본인 30명을 대낮에 때려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서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돌아올 수나 있었을까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결코 대규모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구원일 것일까요?

단지 삼손의 마음에서 블레셋 민족 전체의 존재감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천근만근의 부담을 느끼

게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에게는 제로 상태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영토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블레셋의 치안능력, 군사력, 민족적 우월감, 40년 간 이스라엘을 압제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상황 등을 삼손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개의치 않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선민의 승리인데 블레셋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진정한 승리는 대규모 전쟁에서 얻어지는 물리적, 정치적, 군사적, 집단적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이슬람을 뭉개버리는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삼손에게서 일어난 것 같이 선민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혀 세상을 개의치 않는 승리를 원하십니다.
잠16: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바람에 세상이 작게 보이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서 선민의 집단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온다면 하면 됩니다. 문제는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개의치 않는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12: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크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리실 때에 그동안 알고 지내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얼마나 개의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겨짐을 당하실 때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개의할 만한 일'이란 마음에 두고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개의치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권력과 위협을 개의치 않으시고, 당대를 지배하던 로마 당국의 권력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배신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신경 쓰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삼손도 이 세상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따라 행동했는데 사자를 찢어죽일 때에도, 아스글론 성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도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와 같은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삼손의 마음 안에서 블레셋 전체가 멸시당하고 패배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블레셋의 존재감에 눌려있는

상황인 반면에, 삼손 혼자는 블레셋의 존재감을 제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선민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에서 두 가지를 보여 주는데 사자는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존재이고, 블레셋을 뜻하는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블레셋에 눌려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존재감이 제로가 됩니다. 하늘의 영이 임하면 하늘이 크게 보이고 땅이 작게 보입니다.
지금 돈 문제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과 하늘이 크게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육체의 죽음이 너무나 작게 보였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현실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문제입니까? 자녀의 영이 임해서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크게 볼 때마다 그것의 영이 임한 것인데 그 다양한 영들의 내막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영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사실들이 한없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속지마세요. 남편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남편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 속에는 사탄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이 임하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남편의 성격조차도 귀여울 수 있고, 혹은 그런 성격에 매인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크게 현실로 보이면 돈 문제가 있어도 돈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도 그것이 크게 보이면 육체의 영이 임한 것이고 까보면 사탄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하늘의 영이 임하면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러다 아파서 못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숨이 넘어가면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임해서 그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이 임하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3: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큰 일이라고 합니다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돈 잃고 집 잃고 쫓겨나도 그것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집 없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이 충만하고

집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일 때에 우리가 개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하고 신경 쓰게 하는데, 그 개의하게 되는 상황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큰 권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삼손에게 하찮게 여겨졌던 것처럼 세상일들이 하찮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일에 문제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선민입니다.
마음의 시력은 누구나 다 크게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늘이 크게 보이게 되는 상황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대해 삼손처럼 개의치 않기를 바라십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세요. 세상에 신경 쓰게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고백하면 약속대로 영을 주시고 하늘이 커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은 문제없는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놀랍지요. 삼손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삼손의 승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